

진종오, 50m 권총 '金' 男 축구, 조1위로 8강행

펜싱 김정환·유도 광동한 값진 '銅' 女 배구, 아르헨티나에 완승 '8강 청신호' 女 핸드볼은 네덜란드와 극적 무승부

한국 사격 간판 진종오(37·kt)가 세계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종목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남자 펜싱대표팀의 '말형' 김정환(33·국민체육공단)은 한국 남자 펜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사브르 개인전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유도 남자 90kg급의 광동한(24·하이원)도 동메달을 땀다.

본선에서 1위에 올라 결선에 오른 진종오는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도로 올림픽 슈팅 센터에서 열린 사격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 193.7점을 기록, 1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7일 10m 공기권총에서 5위에 그친 진종오에게 두 번 실수는 없었다. 자신의 주종목인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008년 베이징대회와 2012년 런던대회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50m 권총 금메달을 거머쥔 진종오는 세계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종목 3연패를 달성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개인 종목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것은 진종오가 최초다.

진종오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50m 권총 금메달과 10m 공기권총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땀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선 10m 공기권총과 50m 권총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개인 통산 4번째 금메달, 6번째 메달을 목에 건 진종오는 양궁의 전설 김수녕(총 6개 메달·금4 은1 동1)과 함께 한국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됐다.

신태용(46)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마네 가린샤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후반 32분에 터진 권창훈(22·수원)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2승1무(승점 7점)를 기록한 한국은 조 1위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이 올림픽 축구 8강에 오른 것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총 4번째다. 앞서 1948 런던올림픽, 2004 아테네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국 남자 축구는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올림픽 8강 무대를 밟게 됐다.

C조 1위인 한국은 8강에서 D조 2위인 온

두라스와 격돌한다. 경기는 오는 14일 오전 7시 벨투오리온치의 마네이랑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멕시코(1승1무1패·승점 4)는 조 3위에 머물며 16강에서 탈락했다. 2위는 독일(1승2무·승점 5)이다.

김정환은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 3에서 열린 대회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모타타바 아베다니(32)에 15-8로 완승을 거뒀다.

김정환은 16강에서 소속팀 후배 구분길(27·국민체육진흥공단)을 꺾고 4강까지 오른 아베다니에 '대리 복수전'을 펼쳤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김정환은 한국 남자 펜싱 사상 첫 사브르 개인전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여자 사브르의 김지연(28·익산시청)이 2012 런던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수확한 반면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사브르가 개인전 메달을 딴 적은 없었다.

김정환의 동메달은 전날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21·한국체대)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펜싱이 따낸 두 번째 메달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대표팀의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에 힘을 더한 김정환은 올림픽 2연승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반면 펜싱 여자 플뢰레에 나선 남현희(35·성남시청)와 전희숙(32·서울시청)은 각각 16강과 8강에서 탈락했다.

세계랭킹 13위 남현희는 여자 플뢰레 개인 32강전에서 세계랭킹 60위 니시우카 시호(일본)를 만나 12-15로 패했다.

세계랭킹 19위인 전희숙은 펜싱 여자 플뢰레 16강전에서 세계랭킹 4위 아이다 사나에바(러시아)에 11-15로 졌다.

광동한은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 2에서 열린 남자 유도 90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웨덴의 마르쿠스 니만에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수확했다.

광동한은 토마스 브리세노(칠레)와 포폴 미생가(난민팀), 맘마달리 메히디예프(아제르바이잔)를 연파하며 4강에 올랐지만, 바를람 리파르텔라니(조지아)에 한판패를 당해 동메달결정전으로 밀렸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광동한은 기대했던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동메달을 따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유도 여자 70kg에 나선 김성연(25·광주



금메달을 획득한 진종오 선수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도로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50m 권총 결선 시상식에서 금메달에 입을 맞추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16강에서 이스라엘의 린다 블더에게 절반패를 당해 8강에 오르지 못했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은 마라카낭지뉴 아레나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3-0(25-18 25-20 25-2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승1패를 기록한 한국은 8강 진출에 청신호를 켜다. 또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역대전적 7전(무실세트) 전승의 기록도 함께 이어갔다.

여자 배구는 12개 팀이 2개조로 나눠 상위 4개 팀이 8강전에 진출한다. 한국은 남은 브라질전, 카메룬전에서 1승 이상을 거두면 8강 진출을 확정짓는다.

임영철(66)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푸쳐 아레나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32-32로 비겼다.

러시아, 스웨덴과의 1·2차전에서 아쉽게 패한 한국(1무2패·승점1)은 이날 무승부로 첫 승점을 신고했다.

세계랭킹 10위인 한국은 오는 13일 프랑스(9위), 15일 아르헨티나(29위)와 차례로 맞붙는다.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야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1996년 애틀랜타대회 은메달 이후 20년만의 메달을 노리는 한국 여자 하키대표팀은 독일과의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0-2로 졌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 평일 최다관중 기록 갱신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지난 10일 수원FC전에서 K리그 클래식 통산 평일 최다 관중 기록을 갱신했다.

이날 경기에는 무려 2만 1071명이라는 구름 관중이 찾아 열광적으로 전북을 응원했다. 홈팬들은 1년만에 돌아온 특급 공격수 에두와 국카스텐의 축하공연을 보기위해 경기장을 방문했다.

K리그의 모든 구단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관중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북만은 다르다. 7, 8월 경기에서 주중과 주말을 불문하고 1만 5,000명 이하로 관중이 떨어진 적이 없다.

한편, 전북은 이날 경기에서 조성환의 선제골과 최철순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수원을 물리치고 25경기 연속 무패기록을 이어갔다. /김민근 기자

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 특별기획전 15일부터 독립기념관과 공동 개최

대한체육회는 제31회 리우올림픽대회와 광복 71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10월9일까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역동 대한민국 스포츠, 고난과 환희의 역사'라는 주제로 한국스포츠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개항 이후 근대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발전하는 모습과 1932년 우리나라 선수의 첫 올림픽 참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 하계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자료 등 우리나라 근대스포츠 도입 이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스포츠강국으로 발전해온 과정과 발자취를 다수 살펴볼 수 있다.

주요전시물은 우리나라 근대스포츠의 발전 활동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다수의 사진자료와 1948년 제14회 런던 하계 올림픽에서 활동한 한국대표팀 이원순 고문의 단복(등록문화재 제491-2호), 한인2세 세미 리가 입었던 수영복(등록문화재 제501호),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골퍼인 연덕춘 선수의 골프채(등록문화재 제500호) 등 실물자료 50여 점이 생동감 있는 전시로 구성된다. /김민근 기자

영화 '국가대표' 실제주인공들 누구? 15일 KTV 스페셜인터뷰

영화 '국가대표 2'(감독 김충현)의 실제 주인공인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이 TV에 나온다.

KTV 국민방송은 15일 낮 4시 '스페셜 인터뷰'(진행 최대한 안시우·연출 강석민)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딱 한 개, 곧 국가대표팀이다. 대학·실업팀은 물론 중·고교팀도 없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1988년 창단했지만 선수 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인지도,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해체됐다. 그러다가 2003년 아모리 동계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2000년 다시 결성됐다. 이후 훈련을 거듭, 2013년 스페인 푸이예르타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B에서 5전 전승으로 우승, 디비전 2 그룹 A로 승격했다.

방송에는 17번째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주장 이규선과 올해 중학교 3학년인 매키 이은지, 한국 아이스하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여자 프로아이스하키리그에 진출한 신소정, 아이스하키 중주국 캐나다에서 선수생활을 마다하고 고국의 대표가 되려고 귀화를 신청한 임진경 등이 출연한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